

신자료 내방가사 〈상화농조가〉 소개*

— 작품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

박 지 애**

차 례

1. 서론
 2. 신자료 〈상화농조가〉 소개: 구성과 내용
 3. 〈상화농조가〉의 특징과 의미
 4. 결론
- ▣ 〈상화농조가〉 원문 및 주석

| 국문초록 |

이 글은 신자료 내방가사 작품 〈상화농조가〉를 소개하고, 〈상화농조가〉를 통해 화전가 계열의 내방가사가 지닌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상화농조가〉는 23.3×283.5cm 크기의 두루마리 형태이며,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110행에 달하는 작품이다. 작가와 창작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풍산 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복춘)에서 전승되던 자료로서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전승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화농조가〉의 서사는 하회마을의 근원에 대한 설명과 빼어난 경치인 하회 16경에 대한 묘사로 구성된다. 본사에서는 남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하회마을의 풍류가 남자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여성으로서 풍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어서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화전놀이의 즐거움이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사를 짓게 된 계기가 서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전가류의 내방가사는 공간의 일탈 경험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놀이의 욕망을 충족하고, 탄식과 위로,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향상된다. 〈상화농조가〉는 화전놀이의 체험과 경치에 대한 찬탄 등이 드러남으로써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회라는 삶의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상징적 장소로서의 하회 16경의 수용과 활용,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의 표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드러나면서 독자적인 특징 또한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내방가사, 규방가사, 상화농조가, 화전가, 하회16경, 하회마을

* 이 논문은 2023~2024년도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국립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서론

이 글은 신자료 내방가사 작품 〈상화농조가〉를 소개하고, 〈상화농조가〉를 통해 삶의 공간에서의 놀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는 내방가사의 일면을 살펴봄으로써 내방가사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화농조가〉는 두루마리 형태로 전해지며, 작가와 창작 시기에 대한 기록이나 필사자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어 창작의 시기와 작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다만, 소장 문증을 확인할 수 있어 향유와 전승의 일면을 확인할 수는 있다. 특히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볼 때, 하회마을에 살고 있던 작가의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한 자료는 풍산 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북촌)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서,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관리되고 있다.

〈상화농조가〉는 하회마을의 역사와 빼어난 경치에 대한 자부심, 수려한 경관을 즐기며 노니는 풍류 등을 드러내면서 화전놀이를 진행하는 작품으로서 작품의 유형은 ‘화전가’로 분류할 수 있다.¹⁾ 특정 공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의 풍류를 서술한 ‘화전가’ 계열의 작품은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풍류를 즐기으로써, 용인된 장소에서 경험하는 일탈을 서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방가사에서 보이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나 체험, 놀이 등은 여성의를 확장시키고 여성의 연대의식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²⁾ 특히 화전가의 경우, 화전놀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조언을 통해 형성된 여성들의 유대의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³⁾

이에 반해 본고의 논의대상인 〈상화농조가〉는 새로운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생활공간이기도 한 하회마을에서 여성들만의 놀이를 즐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조언에서 공동체성과 유대의식을 형

1) 하회마을의 근원에 대해 서술하고는 있지만 하회마을의 풍경과 풍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문세덕을 노래한 세덕가류 가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2) 박경주,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 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2017, 145쪽.

3)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화회, 2011, 147쪽.

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화전가류 작품과 차별적인 특징을 지닌다.

내방가사는 자료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소개된 자료가 아직 제한적인 탓에 제한적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개별 작품에 대한 각론적 차원의 자료 연구를 축적하여 내방가사의 공시적·통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⁴⁾ 이러한 의미에서 내방가사 연구는 개별 자료의 발굴과 각론적 차원의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는 ‘화전가’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독자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상화농조가〉 작품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내방가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화농조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여성 연대의 일면이 드러나는 작품의 특징과 그 의미를 구명함으로써 작품이 지니는 가치를 살피도록 하겠다. 아울러 판독한 〈상화농조가〉 자료를 제시하여 후속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신자료 〈상화농조가〉 소개: 작품의 구성과 내용

〈상화농조가〉는 23.3×283.5cm 크기의 두루마리 형태이며,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110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와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풍산 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북촌)에서 기탁한 자료로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관리되고 있다.⁵⁾



4) 고순희, 「내방가사의 기록문학적 가치와 연구방향」, 『한국시가연구』 60, 2024, 199쪽.

5) 풍산 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북촌)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작품의 사진을 제공받아 연구 하였음을 밝힌다.

안동 하회마을 화경당(和敬堂)은 서애 류성룡의 7대손이자 풍산 류씨 찰방공파(察訪公派)의 20대손인 류사춘(柳師春, 1741~1814)이 서애 종가 충효당(忠孝堂)에서 분가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1대손인 류이좌(柳台佐, 1763~1837)에 이르러 ‘화경당’으로 편액되었다.⁶⁾ 특히 류사춘의 아내 연안이씨(延安李氏, 1737~1815)는 아들과 조카의 문과 급제를 기뻐하며 가문의 번영을 기대하는 내방가사 작품 〈쌍벽가〉의 작가이기도 하다.⁷⁾ 〈상화농조가〉는 화경당 및 하회마을의 문중 여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화농조가〉가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는 것은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 화옹이 유의하여 승지를 비설할제 / 인걸은 지령여라 주인인들 업슬소나
거룩하신 우리세덕 교남에 화벌노셔 / 문장학사 도덕군자 일국에서 최고로다
남자나면 명민하고 여자나면 현숙하니 / 고인의 법을바다 지외거니 가라칠제
남자난 십세어던 출취외부 하오면서 / 존송하현 고예악과 시서육예 익게일너
마티사의 문장이며 소학사의 풍유로다 / 산수중 풍월주인 빅상산의 쏜을밧고
강호에서 주선온니 청연의 호기로다 / 추월춘풍 가려하여 등산입슈 쫓케놀제
풍월도 그지업고 경치도 웃듬이라 (중략)

제월간산 우리하회 이전으로 보게되면 / 춘하추동 절을차자 양선마다 노던일이
(후략)

하회마을의 경관에 대한 묘사에서 시작하는 〈상화농조가〉는 하회마을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 인용문과 같이 표현된다. 또한 ‘우리세덕’, ‘우리하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는 없으나 하회마을에 살았거나 거주 중임을 확인할 수는 있다.

〈상화농조가〉라는 제목은 〈相和弄調歌〉 정도의 의미로 파악된다. 작품의 결사에서 ‘농조일루 지어녀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어울려 놀면서 지어낸 한 편의 노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상화농조가〉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 도표와 같다.

6) 정경재, 「〈풍산 류씨 류사춘가 인간〉의 기초적 고찰-류운 인간과 이지역 인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52, 구결학회, 2024, 168쪽.

7) 김수현, 「연안이씨의 삶과 〈쌍벽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구분	주요 내용		행의 구분
서사	하회마을의 근원과 빼어난 경치		1~18행
본사	I	하회마을의 풍류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풍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19~51행
	II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화전놀이와 즐거움	52~92행
	III	다음 놀이에 대한 기약과 풍월주인 되었음에 대한 자부심	93~106행
결사	가사를 짓게 된 계기와 다른 이들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		107~110행

〈상화농조가〉의 서사는 하회마을의 근원에 대한 설명과 빼어난 경치인 하회 16경에 대한 묘사로 구성된다.

(전략) 달관디 늪히올나 십육경 구어보니 / 입암청창 형제암은 증유지쥬 흥연 하고
 마암노도 갈모바우 부용디 그가이라 / 화수에 솟난달은 적벽호가 말가잇고
 선봉에 자난구름 원지영우 희룡한다 / 슈림에 췌난날은 무릉도원 솟빋치요
 슈봉에 고은상풍 금슈강산 그림중에 / 남포홍교 긴다리며 도두형쥬 쪼각비라
 (후략)

인용문은 하회 16경을 묘사한 〈상화농조가〉의 서사 중 일부분이다.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회마을의 아름다움을 서술하기보다는 16경을 읊은 한시의 표현을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한시 구절과 표현을 차용하여 서술한 것은 〈상화농조가〉 본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사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산수에서도 풍류를 즐기지 못하는 남성과 비교하여 풍류를 즐기는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서술되어 있는데, 한시 구절을 차용한 서술은 비록 여성이지만 남성과 비교하여 부족할 것 없다는 자부심과 함께 하회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회 16경의 구체적 묘사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본사 I에서는 남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하회마을의 풍류가 남성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여성으로서 풍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전략) 추월춘풍 가려하여 등산임슈 좃케놀제 / 풍월도 그지업고 경치도 웃듬
이라

빈〃 한 강좌풍유 아조분명 주인일어니 / 가소롭다 너의무리 남자라 명식하며
인기가 쇠삭한들 풍경도 그리업나 / 과거를 못하거든 산수에나 노라보지
쑥〃 히 모여안저 분슈업시 노난모양 / 당구의 풍월이오 고자의 단청이라
못난양 잘난체로 혼들고 춤을춤 / 업난풍경 잇난체로 놀난다시 노릭하니
보고듯고 가난사람 안우스리 뉘잇스리 / 우리비록 여자라도 너의모양 보고나니
잔잉하고 가궁한중 업든분이 절노난다 / 제월강산 우리하회 이전으로 보게되면
춘하추동 절을차차 양선마다 노던일이 / 너의몸에 밋쳐서난 속절업시 쓴어지니
산수도 션〃 하고 풍월도 낙망일다 (후략)

인용문에 따르면, 하회마을에 터를 잡고 살면서 ‘문장학사와 도덕군자를 배
출한 것이 일국의 최고’였지만, 지금은 그 기세가 쇠하고 흩어져 형편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남자들의 노는 모양이 서당개가 읊는 풍월이요, 앞을 보지 못하
는 사람 앞에 놓인 단청일 뿐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춘하추동 절기를 찾아 놀
던 일마저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공간이자 일상의 공간인 하회마을에서의 화전놀이가 기획된다.

본사II는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화전놀이의 즐거움이 서술되어 있다.

(전략) 남산에 화전노름 삼월삼일 상사로다 / 적벽강 비를타고 슈림나들 도라
드니

송풍은 청낭하고 춘슈난 여천이라 / 사공을 진축하여 남창에 비를미고
여동을 먼저보느 쫓가지 희로하니 / 만화방창 화림중에 선여가 내려온닷
난디업난 일진향풍 사람을 놀닐시고 / 향기쫓차 거림하여 상〃 봉 올라서니
이곳이 어딴미냐 화전하던 그곳이로다 (후략)

일반적으로 화전가 계열의 내방가사는 대동소이한 구성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 평가되고 있다. ‘서사-신변탄식-봄의 찬미-놀이의 공론-택일-통문 돌리기-구
고(舅姑) 승낙 연기-준비-치장-승지(勝地) 찬미-화전 굽기-회식-유흥소영(遊興嘯
詠)-파연감회(罷宴感懷)-이별과 재회 기약-귀가-발문’이 일반적인 단계이다.⁸⁾

그러나 〈상화농조가〉는 하회마을에서 바로 화전놀이를 진행하므로 준비 과정이 생략되고 승지에 대한 찬미도 지역민으로서의 주관적 감정이 많이 드러난다. 본사Ⅱ 또한 서사와 마찬가지로 하회마을의 풍광이 지닌 아름다움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화전놀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 보이는 삶에 대한 토로나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본사Ⅲ은 화전놀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전략) 계선암에 비를미고 선유로 직촉하니 / 먼〓이 기경이오 루〓이 선계로다
부용에 낙화하니 칠월에 유화련가 / 만송에 풍호하니 삼월무우 여기로다
경치에 취한몸이 풍경도 빅부르다 / 삼경에 하선하여 다시노자 언약하니
강호에 김히든잠 찌고나서 딛답한다 / 강산도 잘잊거라 원학도 다시보자
화조강산 풍월주인 아조분명 우리로다 (후략)

〈상화농조가〉는 화전놀이에 참여한 여성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본사의 마지막까지도 참석자들이 강산의 풍월주인이 되었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하회마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마을 풍광에 대한 자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사는 가사를 짓게 된 계기 및 이후 자신의 본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전략) 그저잇기 섬〓하여 조덕가의 문장으로 / 소야란의 체를바다 농조일루 지
여너여
남형들게 붓치나니 먼〓이 자시보고 / 이후에 쏬을바다 명심하여 잊지마소

인용문을 통해 작가로서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작품이 널리 향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화농조가〉는 여정이나, 놀이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하회’라는 지역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남성들과의 대비적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8)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118쪽.

맞추어 〈상화농조가〉에 나타나는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도
록 하겠다.

3. 〈상화농조가〉의 특징과 의미

3.1 장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상징적 장소를 통해 표출된 지역에 대한 자부심

일반적으로 일상의 개념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삶의 양상’⁹⁾이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내방가사에서 일상의 공간은 노동의 영역이자 탄식의 대
상으로 그려지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다루어져왔고,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놀
이의 공간은 일탈의 공간이자 욕망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었
다. 대비되는 두 공간은 각각 여성들의 의식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두 영역의
길항 관계 속에서 내방가사의 주제와 내용은 더욱 다양한 면모를 띄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화농조가〉에서 하회라는 공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보자.

건곤이 초판할제 구주산천 되어서라 / 강원도 금강산은 증원에 천명하고
경상도 툇딕산은 동국에 으뜸이다 / 툇딕산 나린용이 일타화산 되여잇고
황지교 흐르난물은 낙동강유 되어서라 / 화산지하 낙강상에 일구하회 명승지라
(중략)

화옹이 유의하여 승지를 비설할제 / 인걸은 지령여라 주인인들 업슬소나
거룩하신 우리세덕 교남에 화벌노셔 / 문장학사 도덕군자 일국에서 최고로다
(후략)

인용문에서와 같이 〈상화농조가〉는 하회의 근원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서사
가 시작된다. 강원도 금강산은 중국에까지 이름을 드날리고, 경상도의 태백산
은 동국에서도 으뜸인 산이다. 이 태백산에서부터 내려온 용이 한 줄기를 이루
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회에서 첫째가는 화산(花山)이 되었다. 산뿐만 아니라 태

9)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
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53쪽.

백산에서부터 이어진 낙동강 물은 화산 아래에서 하회를 이루었으니 명승지임이 분명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략) 화옹이 유의하여 승지를 비설할제 / 인걸은 지령여라 주인인들 업슬소나
거룩하신 우리세덕 교남에 화벌노셔 / 문장학사 도덕군자 일국에서 최고로다
남자나면 명민하고 여자나면 현숙하니 / 고인의 범음바다 거외거너 가라칠제
남자난 십세어던 출취외부 하오면서 / 춘송하현 고예악과 시서육예 익게일너
마티사의 문장이며 소화사의 풍유로다 (후략)

인용문에서는 하회의 근원에 대한 설명에 이어 뛰어난 인재가 배출된 것은 모두 땅이 좋기 때문이라며 하회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뒤를 이어 하회에 자리를 잡은 문중의 덕을 칭송하며 문장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난 후손을 배출한 것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상화농조가〉의 작가는 하회에 터전을 잡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상화농조가〉는 화전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상 공간에서 놀이공간으로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회는 시적 화자가 소속된 삶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화전놀이의 공간이기도 하다. 즉 놀이를 위해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놀이판을 벌인다. 즉 삶과 일상의 공간과 놀이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대립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놀이 공간으로의 전환 없이 삶의 공간이 놀이의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재맥락화되는 것이 특징적이다.¹⁰⁾

하회라는 장소에 대한 재인식과 재맥락화는 하회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에서 비롯된다. 가장 뛰어난 명승지인 이곳 하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전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승지를 찾아가 그곳에서 느끼는 찬탄의 감정을 서술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곳의 소속 구

10) 화전가 작품 중 승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의 감흥과 놀이의 즐거움, 욕망을 표출한 작품이 대부분이라면, 일상의 공간과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화전놀이를 즐기는 작품 또한 하나의 유형으로서 창작되었다고 판단된다. 가까운 지역에서의 화전놀이 체험을 다룬 작품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근 지역에서의 화전놀이를 다룬 또 다른 화전가로는 〈고령가곡녀즈들등님곡이라〉를 참고할 수 있다. (정기선, 「가사 〈고령가곡녀즈들등님곡이라〉의 성격과 문화적 의미」, 『한국학논집』 9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은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상화농조가〉에서 시적 화자가 찾은 자신의 역할은 하회에서 이어져 온 풍류의 계승자로서의 면모이다.

(전략) 산수중 풍월주인 빅상산의 쏜을뵈고 / 강호에서 주선은니 청연의 호기
로다

추월춘풍 가려하여 등산임슈 좃케놀제 / 풍월도 그지업고 경치도 웃듬이라
빈” 한 강좌풍류 아조분명 주인일어니 (후략)

인용문에서는 상산사호(商山四皓)와 이백의 뒤를 이어 이 강산의 풍류를 이어나갈 주체로서 시적 화자와 함께 화전놀이를 즐기는 이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하회의 놀이 문화가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 풍류를 이어나가 이 강산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듯 하회에 대한 찬탄에 이어 하회에서의 화전놀이의 필요성을 풍류의 계승이라는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하회는 일상의 공간에서 놀이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는 장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의지에 따라 일상이자 삶의 공간이 놀이의 공간으로 재맥락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화농조가〉가 지닌 장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재맥락화라는 특징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지역의 근원이 지닌 역사적 맥락, 이곳에 자리 잡은 조상들의 안목, 후손들의 뛰어난 역량, 빼어난 경관에 대한 자부심은 결국 해당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자신과 일행이 단순한 구성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회의 풍류를 이어가는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에 의해 하회의 전통이 계승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화농조가〉에는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하회 16경이라는 상징적 장소를 수용하고 서술하여 하회의 풍광에 대한 찬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략) 달관덕 높히올나 십육경 구어보니 / 입암청창 형제암은 증유지주 흘연 하고

마암노도 갈모바우 부용덕 그가이라 / 화수에 솟난달은 적벽호가 말가잇고
 선봉에 자난구름 원지영우 희롱한다 / 슈림에 췌난날은 무릉도원 솟빗치요
 슈봉에 고은상풍 금슈강산 그림중에 / 남포홍교 긴다리며 도두형주 쏘각비라
 연좌루 늑흔짐은 울원취원 잠져잇고 / 화슈당 조흔경은 송임제설 덧쳐서라
 겸암옥연 양선정은 도화천 통히잇고 / 병풍바우 마당석은 연화수석 경치로다

(후략)

하회 16경은 서예 류성룡의 만손자인 졸재 류원지에 의해 명명된 이후로 수많은 시문의 소재로 활용되었다.¹¹⁾ 하회 16경은 류원지의 『졸재집』을 비롯하여, 권덕수의 『포헌선생문집』, 이복의 『양계선생문집』, 권구의 『병곡선생문집』 등에 실려 있다.¹²⁾ 최근 학계에 소개된 신자료 내방가사 <화유가> 또한 하회 16경이 작품에 수용된 사례이다.¹³⁾ 아울러 <상화농조가>의 향유 문중인 화경당은 류성룡의 종가인 충효당에서 분가하면서 시작된 문중이므로, 하회 16경은 하회의 상징인 동시에 향유 집단의 문중 어른이 명명한 것이기도 하다.

위의 인용문이 하회 16경을 표현한 서술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¹⁴⁾

구분	하회 16경	의미	<상화농조가>에서의 표현
<상화농조가> 에 수용된 16경	입암청창 (立巖晴漲)	맑은 날 강 가운데 선 형제바위	입암청창 형제암
	마암노도 (馬岩怒濤)	갈모바위에 부딪치는 성난 물결	마암노도 갈모바우
	화수용월 (花岫湧月)	화산에 힘차게 달이 떠오르는 경치	화수에 솟난달

11) 서수용, 「하회의 경관과 16경:눈길 머무는 풍광」, 『안동학』 16, 한국국학진흥원, 2017, 194쪽.
 12) 손상락,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사단법인 안동하회마을보존회, 2017, 199쪽.
 13) 최은숙, 「풍산 류씨 가문 전승 <화유가>의 특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60, 한국시가학회, 2024.
 14) 하회 16경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손상락의 책을 참고한다. (손상락, 같은 책, 199~212쪽).

구분	하회 16경	의미	〈상화농조가〉에서의 표현
〈상화농조가〉에 수용된 16경	적벽호가 (赤壁浩歌)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부르는 노랫소리	적벽호가
	산봉숙운 (蒜峯宿雲)	만은봉에 걸쳐 어우러진 구름	선봉에 자난구름
	원봉영우 (遠峯靈雨)	원지산에 신비하게 비 내리는 모습	원지영우
	수림낙하 (水林落霞)	석양에 수리미 언덕으로 지는 아름다운 노을	슈림에 췌난날
	수봉상풍 (秀峯霜楓)	남산 수봉의 아름다운 단풍의 자태	슈봉에 고은상풍
	남포홍교 (南浦虹橋)	남쪽 배나들에 설치한 무지개 싯다리	남포홍교 긴다리
	도두횡주 (渡頭橫舟)	나루에 매어져 있는 배	도두횡주 쪼각벽
	울연취연 (栗園炊烟)	백을원에 연기어린 경치	울연취연
	송림제설 (松林齊雪)	눈 개인 날, 만송정 소나무에 눈 내린 경치	송림제설
〈상화농조가〉에 수용되지 않은 16경	도잔행인 (道棧行人)	상봉대 벼랑길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어우러진 풍경	
	반기수조 (盤磯垂釣)	강 건너 넓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는 모습	
	강촌어화 (江村漁火)	강촌의 고기잡이 불빛	
	평사하안 (平沙下雁)	만송정 앞 드넓은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상화농조가〉에는 하회 16경 중 12가지의 풍경이 수용되어 있다. 하회마을의 근원을 서술한 후에 달관대에 올라 16경을 굽어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하회 16경이 수용된 또 다른 내방가사 작품 〈화유가〉는 가사의 분위기나 내용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형하기도 하고, 시간적 배경과 맞지 않는 경치를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¹⁵⁾ 이에 반해 〈상화농조가〉는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16경을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회마을의 근원을 제시하고 빼어난 풍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16경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6경의 뒤를 이어 하회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풍경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회의 빼어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회 16경은 하회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16경을 수용한 것은 결국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곳에서의 놀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귀결된다. 하회의 근원을 소개하고 16경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 찬탄하는 서술은 경물을 소개하고 감상하는 기행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찬탄과 감상의 대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인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적일 뿐이다.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지역이 놀이와 풍류의 공간이자 찬탄의 공간이 된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작가 본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에서부터도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전가류의 내방가사는 공간의 일탈 경험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놀이의 욕망을 충족하고, 탄식과 위로,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향상된다. 그러나 〈상화농조가〉의 연대의식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 지역의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에 기반을 두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3.2 남성과의 대비적 시선을 통해 표출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다음으로 〈상화농조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화전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전놀이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상화농조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전략) 풍월도 그지업고 경치도 으뜸이라 / 빈 〃 한 강좌풍유 아조분명 주인일 어니

15) 최은숙, 앞의 글, 252쪽.

가소롭다 너의무리 남자라 명식하며 / 인기가 쇠약한들 풍정도 그리업나
 과거를 못하거든 산슈에나 노라보지 / 썩 " 히 모여안져 분슈업시 노난모양
 당구의 풍월이오 고자의 단청이라 / 못난양 잘난체로 흔들고 춤을춤
 업난풍정 잇난체로 놀난다시 노릭하니 / 보고듯고 가난사람 안우스리 뉘잇스리
 우리비록 여자라도 너의모양 보고나니 / 잔잉하고 가공한중 업든분이 절노난다
 제월간산 우리회회 이전으로 보게되면 / 춘하추동 절을차자 양선마다 노턴일이
 너의몸에 밋쳐서난 속결업시 쓴어지니 / 산슈도 션 " 하고 풍월도 낙망일다
 싱각다 우리분닉 상원회호 출판하니 / 육산포림 유지중에 풍연결인 더불상타
 순숙한 우리식덕 놀고나니 걸이기로 / 다시안자 곤손하되 또한번 승판하여
 불상한 너의등을 다려다가 놀어리라 / 병풍바우 썩돌기난 한식동풍 시절이오
 남산에 화전노름 삼월삼일 상사로다(후략)

〈상화농조가〉에는 서사부터 하회의 근원과 후손들의 뛰어남이 서술되었고
 시적 화자 또한 소속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뒤를 이
 어 전개되는 내용에는 인용문에서처럼 풍류의 계승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이 위기가 남성들에 의해 야기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남성들은 풍정(風情)이 없어 풍류를 즐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하고 노는 형상이 서당에서 기르는 개가 읊
 는 풍월이고, 앞 못 보는 자의 눈앞에 놓인 단청처럼 무용하여 이를 보며 웃지
 않을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여성들은 분한 마음이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춘하추동 때를 찾아 풍류를 즐겼던 것이 하회의 전통인데,
 그 전통이 이제 와서 남성들에 의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여성이 제시되고, 여성들
 의 화전놀이는 단순한 놀이 행위가 아니라 철마다 이루어졌던 하회의 풍류를
 계승하는 문화적 행위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마침 시절이 한식이
 라 병풍바위에 썩이 돌아나기에 화전놀이를 하기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인 화전놀이가 시작된다.

이렇듯 〈상화농조가〉에서는 풍류의 계승 주체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필
 연성을 남성과의 대비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즉 〈상화농조가〉는 마을을 구성
 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같은 마을의 남성들과는 자

신들을 대비적 위치에 놓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대비적 위치에 놓고 남성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견지하며 여성의 놀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의 놀이가 단순한 놀이의 차원을 넘어 하회마을의 풍류를 계승하는 행위로 수렴되며 과거의 전통을 잇는 유의미한 행위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전가는 화전놀이 장소에서의 여성들의 탄식과 위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소통함으로써 여성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상화농조가〉에는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신세 한탄의 서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화전놀이를 끝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전락) 경치에 취한몸이 풍정도 빅부르다 / 삼경에 하선하여 다시노자 언약하니
강호에 김히든잠 찌고나서 디답한다 / 강산도 잘잊거라 원학도 다시보자
화조강산 풍월주인 아조분명 우리로다 / 그져잇기 섬〃 하여 조디가의 문장으로
소야란의 체를바다 농조일루 지여너여 / 남형들게 붓치나니 먼〃 이 자시보고
이후에 썬을바다 명심하여 잊지마소

다음 화전놀이를 기억하면서 이번 화전놀이를 통해 자신들은 아름다운 강산의 풍월주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상화농조가〉에서의 여성 연대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소통함으로써 연대하는 방식이 아닌, 남성들과의 대비적 위치를 공유하면서 여성들의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3 화전가의 전통 계승과 변용

〈상화농조가〉는 화전놀이의 체험과 경치에 대한 찬탄 등이 드러남으로써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락) 남산에 화전노름 삼월삼일 상사로다 / 적벽강 빅를타고 슈림나들 도라
드니

송풍은 청낭하고 춘슈난 여천이라 / 사공을 직촉하여 남창에 빅를미고
여동을 먼져보너 쫓가지 희로하니 / 만화방창 화림중에 선여가 내려온닷

난티업난 일진향풍 사람을 놀닐시고 / 향기쫓차 거림하여 상〃봉 올라서니
 이곳이 어디미나 화전하던 그곳이로다 / 삼산은 아〃 하여 반공에 소사잇고
 이수란 양〃 하여 일딴로 둘러셔라 / 기암괴석 참암하고 명화이쵸 나열한디
 석탑을 비겨안자 안계를 널과보니 / 용문산 소릭산은 운외에 병풍이오
 학가산 비봉산은 안전에 명화로다 / 두견화 가지밋히 산양자치 울음울고
 만송정 늪흔남게 빅학이 넘노난 듯 / 인세에 셤경이오 천하에 명승지라
 어와 벗님너야 이노름 기절하다 / 경치도 그지업고 풍정도 자족하다
 음식인들 초솔하라 (후략)

인용문은 삼진날을 맞이하여 즐기는 화전놀이의 즐거움과 주변의 경치에 대한 찬탄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은 승경에 대한 찬탄이나 놀이의 즐거움 등이 서술되는 여타의 화전가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화농조가>는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화농조가>는 하회라는 삶의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상징적 장소로서의 하회 16경의 수용과 활용,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의 표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드러나면서 독자적인 특징 또한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상화농조가>의 지닌 화전가로서의 면모와 독자성을 살피도록 하겠다.

첫째, <상화농조가>는 일상의 공간을 놀이의 공간으로 재맥락화하여 하회라는 삶의 공간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중심에 두고 작품의 앞뒤에 자신이 감회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신변을 탄식하고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고 기존 사회가 갖고 있던 모순과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유대감이 형성된다.¹⁶⁾

그러나 <상화농조가>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둘러싼 세계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즉 시적 화자가 서 있는 곳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하회의 근원에 대한 서술, 하회를 세운 조상에 대한 서술, 하회의 풍광에 대한 묘사와 서술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의식 세계의 이동·확대는 <상화농조가> 작품이 지닌 특징이면서, 다른 화전가 계열

16) 장정수, 앞의 글, 147쪽.

의 작품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화농조가〉가 보여준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공동체성의 형성으로 연결된다. 하회의 시작과 유래, 아름다운 풍광, 터를 잡고 살게 된 이후 가문의 번성 등에 대한 서술은 결국 자신이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자부심으로 귀결된다.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지닌 곳이기애 이러한 기운이 후세에까지 전승되어야만 하고 그 역할을 화자와 ‘우리’가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화농조가〉는 일회적인 놀이의 흥취를 서술한 작품이 아니다. 이들에게 놀이란 옛 흥취를 계승하여 맑고 깨끗한 기운을 이어나가는 행위이다. 놀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놀이를 함께 하는 ‘우리’ 사이의 연대를 통해 과거 우리 지역의 풍류를 이어간다는 자부심이 획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상화농조가〉는 화전놀이라는 행위가 풍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행위로 귀결되며 화전놀이의 주체로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난 작품이다. 〈상화농조가〉에서 화전놀이는 단순한 현실의 일탈로서만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하회의 근원이 맑은 정신을 계승하는 풍류에 있다면, 그 풍류 정신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였고 그 원인은 계승의 주체인 남성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펼치게 되고, 이로써 하회의 근원에서부터 이어져 온 풍류의 정신이 계승된다. 이처럼 〈상화농조가〉에서는 여성의 놀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미는 풍류를 이어가는 주체로서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내방가사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내면을 토로하는 목적으로 주로 창작되었다. 화전가류는 공인된 일탈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가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화전놀이를 여성의 놀이문화로서 주목하고 여성의 문화적 욕구가 화전가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논의하기도 하였다.¹⁷⁾ 〈상화농조가〉 또한 자신들의 놀이 문화가 수준 높은 문화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화전가 작품과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전가류가 놀이 활동 자체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적 교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반해, 〈상화농조가〉는 놀이의 맥락을 찾고 그것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17) 유정선, 앞의 글.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신자료 내방가사 작품 〈상화농조가〉를 소개하고, 〈상화농조가〉를 통해 화전가 계열의 내방가사가 지닌 다양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화농조가〉는 23.3×283.5cm 크기의 두루마리 형태이며,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110행에 달하는 작품이다. 작가와 창작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풍산 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북촌)에서 기탁한 자료로서 전승 문증을 확인할 수 있어 향유와 전승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상화농조가〉의 서사는 하회마을의 근원에 대한 설명과 빼어난 경치인 하회 16경에 대한 묘사로 구성된다. 본사에서는 남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하회마을의 풍류가 남성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여성으로서 풍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어서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화전놀이의 즐거움이 서술되어 있다. 이후 가사를 짓게 된 계기 및 이후 자신의 본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전가류의 내방가사는 공간의 일탈 경험을 공유하고 그 속에서 놀이의 욕망을 충족하고, 탄식과 위로,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향상된다. 〈상화농조가〉는 화전놀이의 체험과 경치에 대한 찬탄 등이 드러남으로써 화전가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회라는 삶의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상징적 장소로서의 하회 16경의 수용과 활용,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의 표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 등이 드러나면서 독자적인 특징 또한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풍산 류씨 하회마을 화경당(북촌) 소장 〈상화농조가〉

2. 참고논저

고순희, 「내방가사의 기록문학적 가치와 연구방향」, 『한국시가연구』 60, 한국시학회, 2024, 187~205쪽.

(DOI : 10.32428/poetry.60..202402.187)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김수현, 「연안이씨의 삶과 〈쌍벽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197~232쪽.

(DOI : 10.17090/kcwls.2016..32.197)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51~182쪽.

(DOI : 10.17090/kcwls.2012..25.151)

——, 「화전가와 여성기행가사의 놀이와 여행 체험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133~165쪽.

(DOI : 10.17090/kcwls.2017..34.133)

서수용, 「하회의 경관과 16경: 눈길 머무는 풍광」, 『안동학』 16, 한국국학진흥원, 2017, 191~209쪽.

손상락,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사단법인 안동하회마을보존회, 2017.

유정선, 「근대 화전가 속 놀이의 기억과 문화적 욕망의 배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207~238쪽.

(DOI : 10.17090/kcwls.2020..41.207)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47~179쪽.

(UCI : G704-001387.2011..39.021)

정경재, 「〈풍산 류씨 류사춘가 언간〉의 기초적 고찰-류운 언간과 이지역 언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52, 구결학회, 2024, 167~210쪽.

(DOI : 10.17001/kugyol.2024..52.005)

정기선, 「가사 <고령가곡녀즈들등님곡이라>의 성격과 문화적 의미」, 『한국학논
집』 9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3, 171~199쪽.

(DOI : 10.18399/actako.2023..90.006)

최은숙, 「풍산 류씨 가문 전승 <화유가>의 특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60, 한
국시가학회, 2024, 243~266쪽.

(DOI : 10.32428/poetry.60..202402.243)

| Abstract |

Introduction to the new Naebang-gasa 〈Sanghwanongjoga〉

Park, Ji-ae
Changwon National Univ. Prof.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 new work of Naebang-gasa, <Sanghwanongjoga>. Through the analysis of <Sanghwanongjoga>, we will see the diversity of the Hwajeon-ga type of Naebang-gasa.

The author and the period of creation of the <Sanghwanongjoga> are not clearly known. The first part of the song consists of an explanation of the origin of Hahoe Village and a description of the 16 scenic spots of Hahoe Village, which are outstanding scenery. The second part expresses regret that the tradition of Hahoe Village cannot be passed on to men. She expresses her determination to continue the tradition as a woman. Then, it describes the joy of Hwajeonori in Hahoe Village. She then describes how she came to write the Gasa and hopes that others will follow her example.

In general, Hwajeon-ga type of Naebang-gasa describe women's experiences of deviating from their living space. Through these experiences, women express their desire for play and experience comfort and healing. Through this, a sense of solidarity among women is formed and enhanced. The new work, <Sanghwanongjoga>, inherits the tradition of the Hwajeon-ga type of Naebang-gasa. However, the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the 16 scenic spots of Hahoe Village, the expression of belonging and pride in the region, and the expression of pride as women are unique features of <Sanghwanongjoga>.

<Sanghwanongjoga> is similar to other works of the Hwajeon-ga type in that it focuses on revealing women's play culture as a sophisticated cultural practice. However, <Sanghwanongjoga> is different in that it finds the context of play and takes pride in it.

Key words : Naebang-gasa, Gwubang-gasa, Sanghwanongjoga, Hwajeonga, 16 scenic spots of Hahoe Village, Hahoe Village

투고일 : 2024년 7월 1일 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12일 게재확정일 : 8월 16일

▣ 〈상화농조가〉 원문 및 주석

상화농조가

건곤¹⁸⁾이 초판¹⁹⁾할제 구주산천²⁰⁾ 되여셔라
 강원도 금강산은 중원²¹⁾에 천명²²⁾하고
 경상도 퉁퉁산은 동국에 웃뜸이다
 퉁퉁산 나린용이 일타²³⁾화산²⁴⁾ 되여잇고
 황지²⁵⁾교 흐르난물은 낙동강유 되여셔라
 화산지하 낙강상에 일구²⁶⁾하회 명승지라
 달관대²⁷⁾ 늪히올나 십육경²⁸⁾ 구어보니
 입암청창²⁹⁾ 형제암은 중유지주³⁰⁾ 흘연하고
 마암노도³¹⁾ 갈모바우 부용딤 그가이라
 화수에 솟난달³²⁾은 적벽호가³³⁾ 말가잇고

-
- 18) 건곤(乾坤):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19) 초판(초판): 일이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처음의 국면이나 시기.
 20) 구주산천(구중산천 九重山川): 겹겹이 둘러싸인 산과 내, 자연.
 21) 중원(中原): 중국.
 22) 천명(擅名): 이름을 드날림.
 23) 일타(一朶): 한 줄기.
 24) 화산(火山): 풍산류씨 7세 전서공 류중해가 풍산 상리에 살다가 길지를 찾아 이주하고자 화산 정상에 올라 지세를 살핀 후 천하제일의 명당이란 것을 알고 숲을 치우고 집을 지은 것이 지금의 하회마을의 기원이다. 화산(火山)은 하회의 주산(主山)이다.
 25) 황지(黃池):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못.
 26) 일구(一區): 한 구역이.
 27) 달관대(達觀臺): 하회마을의 북쪽에 있는 언덕인 부용대(芙蓉臺)에서는 하회마을의 정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부용대에 많은 바위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달관대(達觀臺)’이다.
 28) 십육경(하회 16경): 하회 16경은 서예 선생의 만손자인 줄재(拙齋) 류원지(柳元之, 1598~1674) 공이 하회마을의 아름다운 경치 16곳을 설정한 것이다. 양계산인(陽溪散人) 이복(李馥)이 시로 읊었다.
 29) 입암청창(立巖淸漲): 하회 16경 중 하나로, 입암은 겸암정사 앞에 있는 ‘형제바위’이며, 창(漲)은 물이 가득히 차서 흐르는 모습이다.
 30) 중유지주(中流支柱): 난세에 처하여 의연하게 절개를 지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물 가운데 서 있는 바위가 쓰러지지 않으며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의미함.
 31) 마암노도(馬巖怒濤): 마암(馬巖)은 부용대 아래에 있는 ‘갈모바위’이다. 갈모바위에 부딪치는 성난 물결이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선봉에 자난구름³⁴ 원지영우³⁵ 희룡한다
 슈림에 췌난날³⁶은 무릉도원 쫓빛치요
 슈봉에 고은상풍³⁷ 금슈강산 그림중에
 남포홍교 긴다리³⁸며 도두횡주 쏘각빅³⁹라
 연좌루 뽕흔짐은 울원취연⁴⁰ 잠겨잇고
 화슈당 조흔경은 송임제설⁴¹ 덧쳐셔라
 겸암옥연⁴² 양선정은 도화천⁴³ 통히잇고
 병풍바우 마당석은 연화수석 경치로다
 화옹이 유의하여 승지를 비설할제
 인걸은 지령여⁴⁴라 쥬인인들 업술소냐
 거룩하신 우리세덕 교남⁴⁵에 화별⁴⁶노셔

-
- 32) 화소에 솟난 달: 화산에 힘차게 달이 떠오르는 경치가 ‘화수용월(花岫湧月)’이며,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3) 적벽호가(赤壁浩歌):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부르는 노랫소리인 ‘적벽호가(赤壁浩歌)’는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4) 선봉에 자난구름: 마늘봉에 걸쳐 어우러진 구름인 ‘산봉숙운(蒜峯宿雲)’이며,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5) 원지영우(遠志靈雨): 하회의 원지산(遠志山)에 내리는 비는 ‘원지영우(遠峯靈雨)’로서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6) 슈림에 췌난날(수림낙하, 水林落霞): 수림은 겸암정사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며, 수림산으로 노을이 지는 모습은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7) 슈봉에 고은상풍(수봉상풍, 秀峯霜楓): 하회 남산의 봉우리인 수봉의 곱게 물든 서리단풍은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8) 남포홍교 긴다리(남포홍교, 南浦虹橋): 하회 남쪽 배나들에는 겨울이 오면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가 ‘무지개다리’라는 의미의 췌다리 홍교이다. 무지개 췌다리는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39) 도두횡주 쏘각빅(도두횡주, 渡頭橫舟): 나무에 매어져 있는 배(渡頭橫舟)는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40) 울원취연(栗園炊烟): 하회마을 북쪽에 있는 백울원 골짜기에는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전해 지는데, 아침에는 백울원에 밥 짓는 연기와 안개가 모여들고 저녁에는 아지랑이가 보이는 모습이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41) 송임제설(송림제설, 松林齊雪): 송림은 하회마을의 서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 만송정을 일컫는다. 소나무 숲에 눈 내린 경치가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 42) 겸암정사와 옥연정사.
- 43) 도화천(도화천): 도화천은 달관대에서 겸암정사 쪽으로 15미터 정도 떨어진 절벽에 바위 글씨로 새겨져 있다. 겸암정사 앞에서 복숭아꽃을 물 위에 띄우면 옥연정사로 물길기 옮겨 놓는다고 해서 ‘도화천’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 44) 인걸은 지령여라(인걸지령여, 人傑地靈如): 땅이 좋아야 훌륭한 인물이 난다.
- 45) 교남(嶠南): 조령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경상도’를 이르는 말.

문장학사 도덕군자 일국에서 최고로다
 남자나면 명민하고 여자나면 현숙하니
 고인의 법을바다 거외거너 가라칠제
 남자인 십세어던 출취외부⁴⁷⁾ 하오면서
 춘송하현⁴⁸⁾ 고예악과 시서육예⁴⁹⁾ 익계일너
 마퇴사⁵⁰⁾의 문장이며 소학사⁵¹⁾의 풍유로다
 산수중 풍월주인 백상산⁵²⁾의 썬을밧고
 강호에서 주선⁵³⁾오니 청연⁵⁴⁾의 호기로다
 추월춘풍 가려하여 등산임수 좃케늘제
 풍월도 그지업고 경치도 웃듬이라
 빈 〃 한⁵⁵⁾ 강좌풍유⁵⁶⁾ 아조분명 주인일어니
 가소롭다 너의무리 남자라 명식하며
 인기가 쇠삭⁵⁷⁾한들 풍경⁵⁸⁾도 그리업나
 과거를 못하거든 산수에나 노라보지
 쑥 〃 히⁵⁹⁾ 모여안져 분슈업시 노난모양
 당구⁶⁰⁾의 풍월이오 고자⁶¹⁾의 단청이라

46) 화별(華閼): 널리 알려진, 지체 높은 가문.

47) 출취외부(출취외부, 出就外傅): 집 밖으로 나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게 함.

48) 춘송하현(春誦夏絃): 봄에는 가악을 읊고 여름에는 거문고 현에 맞추어 음악을 익힌다는 뜻으로, 계절에 따라 과목을 바꾸어가며 공부하는 것을 이르는 말.

49) 육예(六藝): 고대 중국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이른다.

50) 마퇴사(馬太史):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키는 말.

51) 소학사(蘇學士): 소동파(蘇東坡)를 가리키는 말.

52) 백상산(白商山): 중국 진시황 때에 난리를 피하여 산시성(陝西省)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 선생(用里先生)을 이르는 商山四皓(상산사호)를 이르는 말.

53) 주선(주선, 酒仙): 세속을 초월하여 술을 즐기는 사람.

54) 청연(청련, 靑蓮): 이백의 호인 청련거사(靑蓮居士)를 의미함.

55) 빈빈하다(彬彬하다): 문조와 바탕이 잘 갖추어져 훌륭하다.

56) 강좌풍류(강좌풍류, 江左風流): 낙동강의 왼쪽인 안동에서 벌이는 풍류를 의미함.

57) 쇠삭(쇠삭, 衰索): 쇠하고 흠어짐.

58) 풍경(풍경, 風情):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를 의미하는 말로 풍류의 의미로 사용됨.

59) 쑥쑥: 조금도 드러나지 아니하게 아주 단단히 숨거나 들어박히는 모양.

60) 당구(堂狗): 서당(書堂)에서 기르는 개.

못난양 잘난체로 흔들고 춤을추며
 업난풍경⁶²⁾ 잇난체로 놀난다시 노릿하니
 보고듯고 가난사람 안우스리 뉘잇스리
 우리비록 여자라도 너의모양 보고나니
 잔잉하고⁶³⁾ 가공한중 업든분이 절노난다
 제월강산⁶⁴⁾ 우리하회 이전으로 보게되면
 춘하추동 절을차자 양선마다 노던일이
 너의몸에 밋쳐서난 속절업시 끈어지니
 산수도 셉 〃 하고 풍월도 낙망일다
 싱각다 우리분서 상원회초 출판하니
 육산포림⁶⁵⁾ 주지중에 풍연결인⁶⁶⁾ 더불상타
 순숙⁶⁷⁾한 우리심덕⁶⁸⁾ 놀고나니 걸이기로
 다시안자 공손하되 또한번 승판하여
 불상한 너의등을 다려다가 놀어리라
 병풍바우 썩돌기난 한식⁶⁹⁾동풍 시절이오
 남산에 화전노름 삼월삼일 상사로다
 적벽강 비를타고⁷⁰⁾ 슈림⁷¹⁾나들 도라드니
 송풍은 청낭하고 춘수난 여천이라

61) 고자(髻者): '시각 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

62) 풍경(風情):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를 의미하는 말로 풍류의 의미로 사용됨.

63) 잔잉하다: 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기 어렵다.

64) 제월강산(霽月江山): 비 갠 뒤의 달처럼 밝은 강산.

65) 육산포림(肉山脯林): 고기가 산을 이루고 포(脯)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몹시 사치스러운 잔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6) 풍연결인(豐宴乞人): 풍성한 잔치에서 빌어먹는 사람.

67) 순숙(순숙, 純熟): 완전히 익음.

68) 심덕(心德): 마음을 쓰는 데서 나타나는 덕.

69) 병풍바우 썩돌기난 한식동풍 시절: 한식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서,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된다. 한식 즈음 썩이 돌아나기 시작하여 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의미함.

70) 적벽강: 부용대 절벽 위에서 부르는 노랫소리(적벽호가, 赤壁浩歌)는 하회 16경 중 하나이다. 부용대 절벽을 적벽으로 일컫고 있다.

71) 슈림(水林): 슈림은 겸암정사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옛날 낙동강 대홍수가 지면 슈림산 낮은 곳으로 물이 넘어간다 해서 슈림(水林)으로 이름 붙여졌다.

사공을 지축하여 남창에 비를미고
 여동⁷²⁾을 먼저보던 꽃가지 희로⁷³⁾하니
 만화방창⁷⁴⁾ 화림중에 선여가 내려온듯
 난티업난 일진향풍 사람을 놀닐시고
 향기쫓차 거림하여 상〃 봉 올라셔니
 이곳이 어디미나 화전하던 그곳이로다
 삼산⁷⁵⁾은 아〃 하여⁷⁶⁾ 반공에 소사잇고
 이수란 양〃 하여⁷⁷⁾ 일딴로 둘러셔라
 기암괴석 참암하고⁷⁸⁾ 명화이초 나열한디
 석탑을 비겨안자 안계를 널과보니
 용문산 소빅산은 운외에 병풍이오
 학가산 비봉산은 안전에 명화로다
 두견화 가지밋히 산양자치 울음울고
 만송정 늙흔남게 빅학이 넘노난듯
 인세에 선경이오 천하에 명승지라
 어와 벗넘냐 이노름 기절하다⁷⁹⁾
 경치도 그지업고 풍정도 자족하다
 음식인들 초술하라⁸⁰⁾ 여동을 분부하여
 산효야속⁸¹⁾ 슈룩디찬 잠연이⁸²⁾ 전진할제
 송강에 노어회⁸³⁾난 슈양미괘⁸⁴⁾ 겹드리고

72) 여동(女童): 여자 아이.

73) 희로(희롱, 戲弄): 가지고 놀.

74) 만화방창(萬化方暢):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짐.

75) 삼산이수(三山二水):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이라는 뜻으로 산과 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함.

76) 아아하다(峨峨하다): 산이나 큰 바위 따위가 험하게 우뚝 솟아 있다.

77) 양양하다(洋洋하다): 한없이 넓다.

78) 참암하다(巖巖하다): 바위가 깎아지른 듯이 높고 험하다.

79) 기절하다(奇絶하다, 奇絶하다): 아주 신기하고 기이하다.

80) 초술하다(草率하다): 꼼꼼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보잘것없다.

81) 산효야속(山肴野簌): 산이나 들에서 나는 새나 짐승의 고기 또는 야채.

82) 잠연하다(潛然하다): 분위기나 활동 따위가 소란하지 않고 조용하다.

83) 송강의 농어회는 황하의 잉어, 양자강의 시어, 흑룡강의 연어와 함께 중국의 4대 어류로 꼽

운안에 국미춘⁸⁵)은 한수포도 발리리⁸⁶
 빅옥설홍 금화난 밀수⁸⁷)에 경히마라
 석경⁸⁸)에 쉼난연기 봉중벽운 방불하다
 썩맛이 이상하여 향기나고 아름답다
 로준으로 상속하고 곡수에 유상하니
 난정에 풍유런가 소장이 함집⁸⁹)이라
 너희들 몇〃 사람 말좌에 안쳐놋코
 먹든음식 남은술노 혼연이⁹⁰) 디접하니
 어리고 좁은쇼견 평상에 처음이라
 두손으로 담삭바다 흥글항글 먹난모양
 범본놈의 창호막듯 치하〃 고 하난말이
 병계양연 주린창자 오날〃 폐여보세
 허위한 우리마암 도로 사양하고
 외면으로 조흔다시 함께노자 디답하니
 사람마다 당케되면 붓그럽고 분체만은
 염치업난 너희쇼견 술잔이나 들갓다고
 웅망총상 쪽다풍정 외눈으로 못보겏다
 유흥이 미이하야 석양이 직산이라
 화초랄 이별하고 셉〃 히 산을나려
 양슈가지 휘여잡고 오든키 다시타니
 턱을전닌 연엽쥬 야중유에 놓히더라

한다.

84) 슈양미궐(수양미궐, 首陽薇蕨): 백이와 숙제가 은나라가 망한 후 주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 하여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었던 일화에서 온 것으로, 변변치 않은 안주거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5) 국미춘(麴米春): 두보의 시에 나오는 중국 운안 땅의 술 이름으로, 한 잔 마시면 취기가 든다고 한다.

86) 발리(발배, 醴醕): 효모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이 지니고 있는 효소에 의하여 유기물이 분해되는 작용. 술이 발효됨을 의미한다.

87) 밀수(蜜水): 꿀을 탄 물.

88) 석경(石鼎): 돌로 만든 솥.

89) 함집(咸集): 모두 모임.

90) 혼연이(欣然):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

돌고지 얼넌지니 형제바위 내려가서
 계선암에 비를미고 선유로 직촉하니
 면〃 이 기경이오 루〃 이 선계로다
 부용에 낙화하니 칠월에 유화련가
 만송에 풍호하니 삼월무우⁹¹⁾ 여기로다
 경치에 취한몸이 풍정도 비부르다
 삼경에 하선하여 다시노자 언약하니
 강호에 김히든잠 썩고나서 디답한다
 강산도 잘잊거라 원학도 다시보자
 화조강산 풍월주인 아조분명 우리로다
 그져잇기 섬〃 하여 조디가⁹²⁾의 문장으로
 소야란⁹³⁾의 체를바다 농조일루 지여니여
 남형들게 붓치나니 면〃 이 자시보고
 이후에 썩을바다 명심하여 잊지마소

91) 풍호하니 삼월무우(풍호무우, 風乎舞雩): 『논어(論語)』 「선진(先進)」 편에, 공자가 제자들의 하고자하는 바를 묻자 증점(曾點)이 ‘늦 봄에 봄 옷을 다 갖추어 입고 관을 쓴 사람과 동자들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쏘인 다음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대답한 데에서 나온 말.

92) 조디가: 후한(後漢)의 조대가(曹大家).

93) 소야란(소약란, 蘇若蘭): 남편 두도에게 직금도를 지어 보낸 소약란을 일컫음.